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와 일반 병동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불안 정도 비교

박동혁, 김은정*, 김인성, 권승규, 왕덕리

부산보훈병원 가정의학과

Differences in Occupational Stress and Anxiety between Hospice and General Ward Nurses

Dong-Hyuk Park, Eun-Jung Kim*, In-Sung Kim, Seung-Kyu Kwon, Der-Lih Wang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Busan Veterans Hospital, Busan, Korea

Background: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measure occupational stress and anxiety among hospice palliative care nurses and general ward nurses and identify the differences between both groups.

Methods: Data for this study was gathered from 16 hospice ward nurses and 17 general ward nurses at hospital in Busan metropolitan city during 2015. Measuring stress are divided by eight several individuals which are job requirements, lack of job autonomy, conflict between individuals, unstable working position, organizational structure, unfair compensation and workplace culture. Data were analyzed with SPSS/Windows ver. 21.0 using cross tabulation analysis and the Mann-Whitney U-test.

Results: Occupational stress of general ward 46.08 ± 8.03 are seems to be higher than hospice ward 43.36 ± 5.02 but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Job requirements, a subdomain of occupational stress, was higher in the general ward (mean=65.21) than in the hospice ward (mean=54.69) ($P=0.018$). The general ward also presented higher scores for workplace culture (mean=47.06) than did the hospice ward (mean=35.41) ($P=0.006$). In terms of occupational stress, the average scores for job requirements, unstable work position,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were higher than 50 on a scale of 0 to 100 for both wards. Furthermore, both wards showed low levels of anxiety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m was not significant.

Conclusion: This study shows that occupational stress and anxiety between hospice ward and general ward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t. But, occupational stress level of nurses was high in both wards, and methods for reducing it are therefore required.

Keywords: Occupational Stress; Anxiety; Hospices; Nurses

서론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말기 암환자와 보호자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환자는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고 남은 보호자에게는 사별 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환자의 신체, 정서, 사회경제, 욕구를 충족시키는 의료 활동이다.¹⁾ 말기 암환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고립과 외로움, 절망감, 불안과 공포 등의 부정적인 사회, 심리 반응을 겪는다. 환자의 보호자들은 슬픔, 나

약함, 위축감을 경험하고,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과 함께 상실감도 맞이하게 된다.²⁾ 이러한 환자의 가까이에서 간호를 제공하는 호사는 다양한 원인으로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과도한 업무량, 업무 시간, 환자의 행동, 역할 갈등 등의 근무 환경 관련 요인과 연령, 결혼 상태, 개인의 경험 등의 개인적 특성 요인이 있다.^{3,4)} 최근에는 심각한 질병을 가진 환자나 임종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들이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며,^{5,6)} Abendroth와 Flannery⁷⁾의 연구에 의

Received May 10, 2016 Revised September 28, 2016

Accepted September 29, 2016

Corresponding author Eun-Jung Kim

Tel: +82-51-601-6067, Fax: +82-51-601-6339

E-mail: ke415@hanmail.net

Copyright © 2017 The Korean Academy of Family Medicin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하면 호스피스 간호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 26.4%가 공감 피로가 발생할 위험도가 높다고 한다. 이렇게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종사하는 간호사들은 환자의 치료 외에 다양한 환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 직면하게 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 및 말기 암환자의 죽음으로 인한 공감 피로나 소진으로 인한 불안감을 경험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와 일반 병동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정도와 불안감 정도를 비교하고, 직무 스트레스와 불안감 지수를 분석하여 향후 호스피스 의료인들의 직무 스트레스 및 불안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병동의 특수성에 맞는 적절한 대처방안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방 법

1. 연구 대상자 및 자료수집 과정

본 연구의 자료는 2015년 부산시 소재의 진료 기관인 한 병원에서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 16명과 일반 병동 간호사 17명 총 3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호스피스 병동은 호스피스 독립형 병동이다. 일반 병동은 소화기 내과, 호흡기내과 환자와 소수의 정형외과, 비뇨기과 환자가 입원하는 산재형 병동이다.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각 병동의 간호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할 것을 서면 동의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며, 설문지 작성 후 일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한 후 수거하였다.

2. 연구 도구

1) 직무 스트레스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도구로 제시한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요인 측정도구(KOSHA code H-42-2006)를 사용하였다. 스트레스에 대한 측정은 직무 요구, 직무 자율성 결여, 관계 갈등, 직무 불안정, 조직체계, 보상 부적절, 직장 문화의 총 8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문항별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영역별 직무 스트레스 요인 점수는 측정도구지침에 제시된 아래의 식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text{영역별 환산 점수} = \frac{\text{실제 점수} - \text{문항 수}}{\text{예상 가능한 최고점수} - \text{문항 수}} \times 100$$

$$\text{직무 스트레스 총 점수} = \frac{\text{각 8개 영역의 환산 점수의 총 합}}{8}$$

2) 불안 정도

한국판 Beck의 불안 척도(Beck anxiety inventory, BAI)를 사용하였다. Beck에 의해 고안된 BAI를 서수균이 번안한 척도로 총점은 0-63점 범위이며, 총 21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별로 0-3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점수를 합산하여 불안 정도를 평가한다. 21점 이하에서는 불안 정도가 없다고 평가하며, 22-26점, 27-31점, 32점 이상의 세 구간으로 나누어 불안 증상을 평가한다.⁸⁾

3.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for Windows program ver. 21.0 (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구체적인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병동 간의 상관관계는 교차분석(Pearson's correlation test, Linear by linear association test, Fisher's exact test)으로 비교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 정도는 Mann-Whitney U-test로 비교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불안 정도는 Mann-Whitney U-test로 비교하였다.

결 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여성 간호사 33명이었다. 주 근무과는 호스피스 48.5% (16명), 내과 48.5% (16명), 그밖의 과가 3.0% (1명)였다. 연령은 30-40세가 51.5% (17명)로 가장 많았으며, 기혼자가 48.5% (16명),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97.0% (32명), 대학원 졸업이 3.0% (1명)였다. 근무 경력은 5년 이상 54.5% (18명), 2년 이하는 27.3% (9명), 2-4년 18.2% (6명)였다. 호스피스 병동은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자가 93.8% (15명), 안 받은 자가 6.3% (1명), 일반 병동은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자는 23.5% (4명), 안받은 자가 76.5% (13명)였다. 그 밖에 다른 일반적 특성에서는 양 병동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1).

2. 직무 스트레스

연구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 비교는 Mann-Whitney U-tes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전체 직무 스트레스는 일반 병동이 46.08±8.03점으로 호스피스 병동 43.36±5.02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세부 항목별 스트레스 지수에서는 직무 요구 부분에서 일반 병동의 점수가 65.21±12.59점으로 호스피스 병동 54.69±10.52점보다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8). 그리고 직장 문화 부분에서 일반 병동의 점수가 47.06±13.16점으로 호스피스 병동 35.41±7.15점보다 높으며 통계적

Table 1. Comparison on general characteristics of hospice ward vs. general ward

Characteristic	Category	Hospice ward	General ward	All	P-value
Gender	Female	16 (48.5)	17 (51.5)	33 (100.0)	
Age (y)	<30	6 (37.5)	6 (35.3)	12 (36.4)	0.949
	30-40	8 (50.0)	9 (52.9)	17 (51.5)	
	>40	2 (12.5)	2 (11.8)	4 (12.1)	
Religion	Protestant	1 (6.3)	0 (0.0)	1 (3.0)	0.577
	Catholic	1 (6.3)	1 (5.9)	2 (6.1)	
	Buddhist	3 (18.8)	4 (23.5)	7 (21.2)	
	Etc.	1 (6.3)	0 (0.0)	1 (3.0)	
	None	10 (62.5)	12 (70.6)	22 (66.7)	
Religion activity	High	0 (0.0)	0 (0.0)	0 (0.0)	1.000*
	Middle	1 (6.3)	2 (11.8)	3 (9.1)	
	Low	15 (93.8)	15 (88.2)	30 (90.9)	
Marital status	Married	9 (56.3)	7 (41.2)	16 (48.5)	0.387 [†]
	Single	7 (43.8)	10 (58.8)	17 (51.5)	
Education level	College	15 (93.8)	17 (100.0)	32 (97.0)	0.485*
	Graduate school	1 (6.3)	0 (0.0)	1 (3.0)	
Work period (y)	<2	4 (25.0)	5 (29.4)	9 (27.3)	0.515
	2-4	2 (12.5)	4 (23.5)	6 (18.2)	
	≥5	10 (62.5)	8 (47.1)	18 (54.5)	
Department	Hospice	16 (100.0)	0 (0.0)	16 (48.5)	<0.001
	Internal medicine	0 (0.0)	16 (94.1)	16 (48.5)	
	Etc.	0 (0.0)	1 (5.9)	1 (3.0)	
Hospice training	Yes	15 (93.8)	4 (23.5)	19 (57.6)	<0.001*
	No	1 (6.3)	13 (76.5)	14 (42.4)	
Experience of death (times)	None	3 (18.8)	4 (23.5)	7 (21.2)	0.622
	1-3	9 (56.3)	11 (64.7)	20 (60.6)	
	4-6	4 (25.0)	1 (5.9)	5 (15.2)	
	7-10	0 (0.0)	1 (5.9)	1 (3.0)	
Social activity	High	1 (6.3)	1 (5.9)	2 (6.1)	0.431
	Middle	14 (87.5)	13 (76.5)	27 (81.8)	
	Low	1 (6.3)	3 (17.6)	4 (12.1)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P-values were analyzed using cross tabulation analysis by linear by linear association test except.

*Fisher's exact test of independence, [†]Pearson's correlation test.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6$). 세부 항목별 스트레스 지수를 보면 양 병동 모두에서 직무 요구에서 상위 50%, 직무 불안정부분에서 상위 50%, 직장 문화에서 상위 50%의 직무 스트레스 평균 점수를 보인다(Table 2).

3. 불안 정도

연구 대상자의 불안 정도 비교에서는 호스피스 병동 10.88 ± 7.10 점, 일반 병동은 12.24 ± 7.33 점으로 양 병동 간의 불안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불안감을 보이지 않았다(Table 2).

고 찰

본 연구의 자료 분석 결과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와 일반 병동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직무 요구와 직장 문화 부분에서 일반 병동의

직무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으나 전체적인 직무 스트레스는 양 병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불안감도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사가 근무하는 일반 병동은 호스피스 병동에 비해 병상 수가 많고, 간호사 1명당 전담 환자 수가 더 많다. 서론에서 기술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특성상 입원 환자들의 잦은 사망과 환자 및 가족이 겪을 수 있는 여러 부정적인 요소들로 인하여 호스피스 병동 의료인의 불안감과 정서적 소진을 더 많이 경험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나, 연구 결과는 양 병동에서 차이가 없었으며, 불안감을 보이지 않았다.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들은 대부분 호스피스 완화의료 교육을 받았으며, 대체로 근무 연한이 긴 것 등이 불안감과 정서적 소진 수준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말기 암 환자 간호사의 직무 소진에 대한 국내 논문을 살펴보면 호스피스 및 암병동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외과 및 내과계의 간

Table 2. Comparison on job stress and anxiety of hospice ward vs. general ward

Category	Hospice ward	General ward	All	P-value
Job stress				
Job requirement	54.69±10.52	65.21±12.59	60.11±12.64	0.018
Job autonomy	52.61±12.83	51.96±15.17	52.28±13.87	0.768
Conflict relation	33.30±5.73	32.00±12.96	32.63±9.99	0.967
Job instability	40.62±16.08	32.36±20.81	36.36±18.85	0.232
Organizational structure	41.66±8.61	47.55±14.37	44.69±12.12	0.262
Unfair compensation	45.13±12.52	46.40±11.97	45.78±12.06	0.734
Workplace culture	35.41±7.15	47.06±13.16	41.42±12.06	0.006
All	43.36±5.02	46.08±8.03	44.76±6.78	0.234
Anxiety	10.88±7.10	12.24±7.33	11.58±7.14	0.63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P-values were analyzed by Mann-Whitney U-test.

호사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소진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 근무 연한, 호스피스 교육 여부 등으로 나타났다.⁹⁾ 암 전문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소진 수준은 중, 상 정도로 나타났고, 중환자실, 응급실, 마취 간호사의 소진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직무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과다한 업무, 자율성 부족, 역할 갈등 등이 있다고 한다.¹⁰⁾ 호스피스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 논문을 살펴보면 Bené와 Foxall¹¹⁾의 호스피스 병동과 외과 병동 간호사의 죽음 불안감과 직무 스트레스 비교 연구에서는 직무 스트레스의 차이는 없었고, 죽음 불안감은 외과 병동에서 높았다고 한다. 호스피스 간호사의 정서적 소진, 이인증, 낮은 자기 만족으로 정의된 소진 수준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간호사의 소진 수준은 낮다고 조사되었다.¹²⁾ Vachon¹³⁾의 호스피스 병동에 근무하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 대한 리뷰 논문을 살펴보면 초기 호스피스 의료 시절에는 관련 의료인들에게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보였지만, 그 후 시행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현대적 호스피스 의료 시스템에서는 세계적으로 의료인에게서 특별한 스트레스나 소진 수준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 병원의 호스피스 병동 의료인 중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전체적인 대상자 수가 작고, 표본 대상의 선택 편중 가능성이 있어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표준화된 스트레스나 소진 현상에 대한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여러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확대,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스템이 의료인의 정서적 소진 현상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가 일반 병동에 비해서 높은 스트레스 지수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세부 항목별 스트레스 지수에서 상위 50%의 높은 스트레스 지수를 보이므로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

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요 약

연구배경: 본 연구는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와 일반 병동 간호사의 직무 수행 시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와 불안 정도를 측정하고, 차이점을 비교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2015년 부산시 소재의 진료 기관인 한 병원에서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 16명과 일반 병동 간호사 17명 총 33명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 불안 정도를 조사하였다. 스트레스에 대한 측정은 직무 요구, 직무 자율성 결여, 관계 갈등, 직무 불안정, 조직체계, 보상 부적절, 직장 문화의 총 8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자료는 SPSS Windows ver. 21.0을 이용하여 교차분석, Mann-Whitney U-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호스피스 병동과 일반 병동의 직무 스트레스 비교에서는 일반 병동이 46.08±8.03점으로 호스피스 병동 43.36±5.02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세부 항목별 스트레스 지수에서는 직무 요구 부분에서 일반 병동의 점수가 65.21±12.59점으로 호스피스 병동 54.69±10.52점보다 높으며 (P=0.018), 직장문화 부분에서 일반 병동의 점수가 47.06±13.16점으로 호스피스 병동 35.41±7.15점보다 높았다(P=0.006). 그러나 그 밖의 부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스트레스 지수에서는 양 병동 모두에서 직무 요구에서 상위 50%, 직무 불안정 부분에서 상위 50%, 직장 문화에서 상위 50%의 직무 스트레스 점수를 보였다. 불안감 비교에서는 양 병동 모두 낮은 수준의 불안감을 보이며,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호스피스 병동과 일반 병동의 직무 스트레스와 불안 정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양 병동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지수가 높으므로,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과 방안이 필요하다.

중심단어: 직무 스트레스; 불안; 호스피스; 간호사

REFERENCES

1. Yi M. Nurses' experience of caring for dying patients in hospitals. *J Korean Acad Nurs* 2003; 33: 553-61.
2. Choi ES, Kim KS. Content analysis with counseling cancer patients and their relatives in outpatient hospice office. *Korean J Rehabil Nurs* 2005; 8: 50-8.
3. Hamaideh SH, Ammouri A. Comparing Jordanian nurses' job stressors in stressful and non stressful clinical areas. *Contemp Nurse* 2011; 37: 173-87.
4. Wu H, Chi TS, Chen L, Wang L, Jin YP. Occupational stress among hospital nurses: cross-sectional survey. *J Adv Nurs* 2010; 66: 627-34.
5. Healy CM, McKay ME. Nursing stress: the effects of coping strategies and job satisfaction in a sample of Australian nurses. *J Adv Nurs* 2000; 31: 681-8.
6. Sabo BM. Adverse psychosocial consequences: compassion fatigue, burnout and vicarious traumatization: are nurses who provide palliative and hematological cancer care vulnerable? *Indian J Palliat Care* 2008; 14: 23-9.
7. Abendroth M, Flannery J. Predicting the risk of compassion fatigue: a study of hospice nurses. *J Hosp Palliat Nurs* 2006; 8: 346-56.
8. Seo SK. Relationship between self-discrepancy and depression or anxiety with consideration of self-focused attention, actual self-concept, and self-guides preference [dissertation]. Seoul: Seoul National Univ.; 1996.
9. Leou CS, Kim KK, Kim JH. Factors associated with burnout of nurses working for cancer patients. *Korean J Hosp Palliat Care* 2005; 8: 45-51.
10. Kim K, Yon J. Spirituality, death anxiety and burnout levels among nurses working in a cancer hospital. *Korean J Hosp Palliat Care* 2013; 16: 264-73.
11. Bené B, Foxall MJ. Death anxiety and job stress in hospice and medical-surgical nurses. *Hosp J* 1991; 7: 25-41.
12. Payne N. Occupational stressors and coping as determinants of burnout in female hospice nurses. *J Adv Nurs* 2001; 33: 396-405.
13. Vachon ML. Staff stress in hospice/palliative care: a review. *Palliat Med* 1995; 9: 91-122.